

선력 63 / 제주 지방선거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당·이름 가나다 순>

문대림 “도민환경주권 원탁회의 정기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도민이 직접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 도민환경주권 원탁회의 정기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도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민환경영향평가단을 새로 만들어 도민이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등 평가 과정을 더 투명



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민환경주권을 선언하고, 도민이 환경의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위성곤 “노동 존중 기본 조례” 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 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해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광역지자체가 지역 단위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권 지표와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노동 권의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의 강화와 권리 확대, 사업주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플랫폼 노동자와 감정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한 근로감독관 확대, 안전한 일터 조성, 장애인 노동권 확대와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김명호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 필요”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불거진 정부 라인을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와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과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도지사에게 입장 표명의 시간을 드렸지만 충분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제주사회가 더 큰 혼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기에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발장에 성명불상 도 소속 공무원 6급 비서관 등 도지사 측근 포함)과 이에 관여하거나 지시·묵인한 자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 지사는 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발인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봉개동에 ‘유아 전용 기후환경교육관’ 문 연다

내년 1월 개관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2026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해 3년간 국비 3억8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제주도 봉개동 제주도 환경교육센터 내 노후 교육 전시설로, 도는 이곳을 제주 최초의 유아 전용 기후환경교육관으로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개관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교육관은 유아기 오감으로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 중심의 경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임흥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에는 섬 지역 특성상 기후변화의 영향이 타 지역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아기부터 기후 대응 생활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Advertisement for Dongseon Interiors (동서인테리어) featuring interior design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ongseon Furniture (동서가구) featuring furniture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법 개선안 통과

JDC면세점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활용 근거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북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조사·총괄 기능까지 이양되지 않도록 정비했다.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과제는 적용 대상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문이 보완됐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는 ‘자격 기준’에서 ‘자격 및 임용 기준’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포괄적 이양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과 JDC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가 논의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주특별법의 핵심인 ‘포괄적 권한 이양’이 단순한 입법 방식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앙부처가 동

의하더라도, 실제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권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조례 속에 함께 녹아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JDC 면세점 수익금을 공한 소음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안이 신규 과제로 수용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강민철 특별자치법률추진단장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관련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지방세 징수 권한 확보를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 영리법인 형태의 국제대학 설립 허용 등이 담겼다. 해당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봄비 따라... 봄비가 내린 25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교정을 걸어가고 있다. 김희만기자

제주, AI 기반 실시간 모기 감시체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 감시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유입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로 종류와 개체 수를 즉시 판별하는 AI 기반 모기 자동 감시 장비(AI-DMS)를 도입한다.

도입된 장비는 제주시 조천읍 동백습지센터에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AI를 활용한 자동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야외 현장에서 매개모기 개수 및 종 분류를 실시간 수준으로 확인한다. 감시는 5월부터 10월 까지 이뤄지며, 주 3회(월·수·금) 장비를 가동한다. 오소범기자

Advertisement for 'Mumbyeongmyo' (무병묘) seedlings, highlighting domestic production and government support.